

오수개 국제기구 공식 인정

UN FAO 품종 등재 기념비 제막식... 임실군, 국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급부상

천년 역사를 지닌 오수의 견설화의 주인공 오수개가 대한민국 국가 고유 품종으로 국제기구에 정식 인정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국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 30년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한 오수개의 UN FAO(식량농업기구) 품종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갖고, 반려동물 메카가 될 임실군 오수편을 널리 알렸다.

지난달 29일 오수개연구소 운영위원회(회장 심재석)는 오수반려누리에서 오수개 UN FAO 품종 등재 기념행사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행사는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김승창 박사과 대전대학교 박승규 교수, 원광대학교 김옥진 교수의 오수개 품종 등재 기념 혁신센터장의 오수개 콘텐츠를 활용한 세계화 전략 특강,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오수개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30일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이로써 오수개는 국제적 품종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오수개, 1천만만의 부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오수개 연구는 지역민들에 의해 1995



지난달 29일 오수개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임실 오수반려누리에서 오수개 UN FAO 품종 등재 기념행사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4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늘름하고 사립 친화적이며 명견으로서 복원 육성됐다. 이후 30년간의 연구를 거쳐 마침내 국제적 품종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은 오수개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과 관광을 클러스터화하는 반려동물 프로젝트에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석 회장은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오수개 품종 등재를 통해 오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반려동물 산업 및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오수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오수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려동물 프로젝트는 오수개연구소와 더불어 의견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누리지원센터, 세계명견랜드 조성 사업, 감개인생가치 재단장, 오수 펫즈 모공원, 펫용품 전용농공단지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이 클러스터화되고 있다.

또한 오수 의견문화제가 올해로 39회째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030년 세계반려동물산업엑스포를 오수의견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은 또 현재 전북 민속자료 1호인 의견비를 하루빨리 국가유형문화재로 승격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오수개가 정식등재된 것은 천년역사의 오수개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인 오수, 그리고 오수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국의 명견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와 애견 호텔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의 이호 관장(41)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2024년 전북노인일자리 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노인 복지의 새 패러다임 제시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일자리 유공자 '도지사상' 수상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의 이호 관장(41)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2024년 전북노인일자리 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포럼은 노인일자리 광역전담기관인 전북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해 도내 노인일자리 정책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호 관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이호 관장은 순창군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3,000개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장수사업에 헌신하며, 지난해 2월 1일, 순창시니어클럽을 개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소 1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은 "노인일자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순창군과 함께 발로 뛰어준 시니어클럽 임직원분들과 받는 상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호 관장님의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이호 관장은 순창군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3,000개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장수사업에 헌신하며, 지난해 2월 1일, 순창시니어클럽을 개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소 1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남원시가 위탁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부터 남원시센터 지원 대상이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 취지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등록을 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설은 센터(063-626-1116)로 문의하면 된다.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이 센터에 등록하면 △위생·영양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급식소 이용자, 조리원, 종사자, 시설장 등) △맞춤형 식단 제공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순창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202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 검증 절차를 거쳐 1,2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람·의견제출 기간 동안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을 제출받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경산위, 농가·지역산업 육성 방안 질의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영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어려워진 지역 경제 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 및 지역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질의와 제안을 했다.

영봉섭 위원장은 시내 야간경관 조성 시 빛 공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숙자 부위원장은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적을 묻고 지류발행은 수수료가 높으니 모바일 상품권 확대를 제안했다.

소태수 위원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개소의 사업기간을 묻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하고, 윤지홍 위원은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 시설 조성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평기 위원은 공설시장 물품포고 효과와 산재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소 사유를 질의했으며, 이기열 위원은 곤충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농가 지원에 힘을 것을 주문했다.

김한수 위원은 운봉 허브밸리는 꽃과 경관이 핵심인데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 조성에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위원은 산림소득증대 사업의 자부담률이 높아 포기자가 많다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염기남 부군수 주재

순창군이 지난달 3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염기남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총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19개 팀의 팀장들이 참석해 체납 징수 현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체납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체납처분 실적 보고, 체납액 징수 시 발생하는 문제점 공유, 그리고 향후 징수 대책 수립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다



양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체납 현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향토음식 개발 교육

임실군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4 임실N치즈축제에 지역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향토음식 개발 교육을 지난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교육을 통해 신메뉴를 개발하고 향토음식의 맛과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음식아카데미 장미경 원장을 초빙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 및 표준 조리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IMSEOL CHEESE
임실인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